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8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오직 예수, 오직 믿음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갈라디아서 4장 ~ 갈라디아서 6장
- 14 1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 22 매일성경묵상 에베소서 1장 ~ 에베소서 6장
- 30 2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 38 매일성경묵상 시편 45편 ~ 시편 50편
- 46 3과 그이
- 54 매일성경묵상 시편 51편 ~ 시편 56편
- 62 4과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 70 매일성경묵상 시편 57편 ~ 시편 62편
- 76 부록 바벨탑과 아브라함

8 August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5 에베소서 1장	6 에베소서 2장	7 에베소서 3장
11	12 시편 45편	13 시편 46편	14 시편 47편
18	19 시편 51편	20 시편 52편	21 시편 53편
25 제4차 학습 · 세례식	26 시편 57편 ←	27 시편 58편 제7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28 시편 59편 →

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갈라디아서 4장

2 갈라디아서 5장

3 갈라디아서 6장

8 에베소서 4장

9 에베소서 5장

10 에베소서 6장

15 시편 48편

16 시편 49편

17 시편 50편

22 시편 54편

23 시편 55편

24 시편 56편

29 시편 60편

30 시편 61편

31 시편 62편

교회 주요일정

8월 25일

제4차 학습·세례식

8월 26일~28일

제7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나의 주요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제7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8월 26일~28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❿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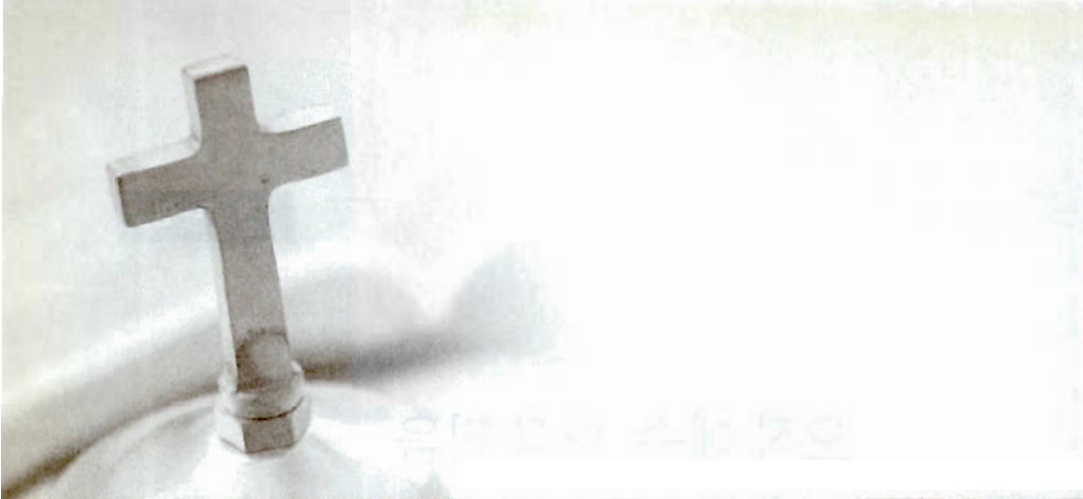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2013년 8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아빠 아버지

1

목요일

갈라디아서 4장
찬송가 385장

묵상노트

주의 은혜의 놀라움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두 자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중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22절). 바울은 이 두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24~28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6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6절) 되어진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놀라움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11절). 절대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왜 공로를 찾아 실망합니까? 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실망합니까?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15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그리고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외치시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음성을 들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Because you are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the Spirit who calls out, “Abba, Father.”(Gal. 4:6)

• 이간시켜(17절) :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선동가들은 아침을 함으로써 인기를 누렸다. 아침하는 자는 청중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었다.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잠 27:6).

기도제목

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고 약속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2

금요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찬송가 186장

목상노트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16절)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2절)이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에 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2절) 것입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두 방향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17절). 이 두 가지는 하나로 합쳐지지도,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회목을 바라고 평화를 갈망하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화목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요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16절).

육체의 욕심은 구체적이며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들입니다(19~21절). 왜 이것을 가버야 여기십니까? 왜 이것을 간파하십니까? 죄의 무서움은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24절).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부디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 **육체(16절)**: 육체란 인간적 연약함과 유한함이며 어떤 사람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혹은 최악의 것)을 의미한다.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든가 육체의 사람이든가 둘 중 한 쪽만 될 수 있으며 그 둘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Gal. 5:16)

기도제목

① 삶의 한 가운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스스로 속이지 말라

3

토요일

갈라디아서 6장
찬송가 290장

묵상노트

신앙을 가르친다고 다가온 그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 말했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12절).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모습을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2,5절)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짐을 지는 것은 자기의 일을 살피는(4절)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9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7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14절).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며,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Gal. 6:7)

•흔적(17절) : 일무 중, 범 죄자, 전쟁 포로들은 문신을 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처를 의미한다. 즉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 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 ② 감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십자가 안에서 휴가



참된 쉼은 예수님이 주십니다(마 11:28~29). 십자가의 은총만이 바
른 일상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
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쉼(휴가)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
리의 쉼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서
는 안 됩니다(요일 2:16).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휴가가 되도록 매 순간 깨어 십자가를
불드시기 바랍니다(살전 5:6).

1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포도나무로 믿어야 한다

| 찬 송 |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 본 문 | 요한복음 15:1~8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①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②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③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④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⑤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⑥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⑦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재자가 되리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4 주일

5 원요일

☐ 예배소서 1장

6 화요일

☐ 예배소서 2장

7 수요일

☐ 예배소서 3장

8 목요일

☐ 예배소서 4장

9 금요일

☐ 예배소서 5장

10 토요일

☐ 예배소서 6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포도나무'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 라고 하셨습니다(요 15: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 즉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영적인 하나 됨에 대한 신비로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연합'과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16~20, 25~31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의도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요한복음 14:16~20, 25~31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아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요 14:16~17 _____

요 14:18 _____

요 14:19~20 _____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주하심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계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1. _____ (요 14:25~26)

2. _____ (요 14:27)

3. _____ (요 14:28)

4. _____ (요 14:29)

※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요 16:13

포도나무의 비유가 주는 두 가지 의미

포도나무의 비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두 가지 배경은 무엇입니까?

1.

2.

※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에 대한 주제이고, 두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가 함께 맺어야 할 ‘’에 대한 주제입니다.

롬 6:5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요 15:4~5 _____

※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갈 2:20 _____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영혼 구원과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가지가 된 제자들의 열매, 즉 성령을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한 선포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은 포도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진실로 가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선포하는 자들이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가지가 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포도나무로 믿어야 합니다.

벧전 2:9 _____

마 5:16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총현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든든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사실은, 이념적 대립을 초월하여, 양측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3–110

Answer: $\frac{1}{\sqrt{e}}$

(continued)

1000

5

월요일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1장
찬송가 447장

묵상노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3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5절)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간구와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는 “우리에게 저저 주시는 바”(6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7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11절)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18~19절) 알게 되는 곳이 교회임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그곳,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충만한 이유, 우리가 적분자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는 ‘주님이 행하심과 주님이 인도하심과 주님이 이루심’ 뿐입니다. 주님이 앞서 인도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르십시오.

• **하늘(3절)** : 고대 세계에 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많은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식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2)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Eph. 1:22)

기도제목

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6

화요일

에베소서 2장
찬송가 499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밝힙니다(1절).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3절)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11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허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대해서 “원수”(14절)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13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려고 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22절)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끝까지 따르십시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16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십자가의 길 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 공중(2절) :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은 그의 실질적 통치권을 나타내는 칭호였다. 보통 악한 영들은 하늘 중 가장 낮은 영역대기권을 지배했다고 여겨졌다. 그 곳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밑에 있었다. '공중'이란 말은 흔히 대기권 하늘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Eph. 2:16)

기도제목

- 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7

수요일

에베소서 3장
찬송가 304장

묵상노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러므로”(1절)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즉 그렇기 때문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신 것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음을(엡 2:16)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임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8절)이라고 밝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자신은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는 스테반을 죽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며 많은 사람들을 잡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주님의 붙들림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19절).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8절) 것임을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그분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20절)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실망하셨습니까? 무엇에 낙심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했던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19절) : 어떻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다는 것에 대한 묘사로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Eph. 3:19)

기도제목

①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8

목요일

에베소서 4장
찬송가 343장

묵상노트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1~2절)고 권면합니다. 권면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따르게 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1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랄지라”(15절). 그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6절)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을(13절) 말합니다.

교회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틈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쟁 가운데 전투가 시작될 때 적은 가장 약한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성벽을 파괴합니다. 그 가운데 틈은 약점을 보게 되는 가장 큰 확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27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의 의로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Eph. 4:15)

• 틈(27절) :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마도 전쟁에서 나왔을 것이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편에서 구역을 내어 준다는 개념일 것이다. 틈은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조그만 곳에서 시작되었다.

기도제목

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9

금요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찬송가 330장

목상노트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도 말라고(2절)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지혜 없는 자(15절)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16절). 어리석음, 술 취함(17~18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추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헛된 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4절)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마땅치 않음을 말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7절) 경고하는 이유는 교회는 그러한 싸움 한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33절). 그 이유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32절)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따르십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16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들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세월을 아끼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부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Eph. 5:16)

•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3절) : 혼전 및 다른 부도덕한 관계, 무례한 말, 농담 등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어느 사회나 동일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이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계속적으로 열거함으로 강조한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도제목

①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함을 확인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공경해야 합니다(1~2절). 그리고 아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4절). 종들은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5~8절). 상전들도 위협을 그쳐야 합니다(9절).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행복한 아담과 하와의 에덴동산에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죄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합니다(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14~17절).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상전에게 종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19절).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9)

Pray also for me, that whenever I open my mouth, words may be given me so that I will fearlessly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Eph. 6:19)

• 나를 위하여(19절) : 위한다는 것은 전투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군사들이 어떻게 전투 대형에서 함께 서서 견고한 단위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지와 관련되어 있다. 로마 군사는 혼자 있을 때에는 취약하지만, 연합된 군대로서 로마 군대는 무적이었다.

기도제목

- 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제 주일은 내게 설렘으로 다가온다

흔히 모태신앙이 가장 끓기 힘든 신앙이라고들 말한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주일은 원래 교회를 가는 날이니까 별 생각 없이 평일처럼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찬양대도 습관처럼 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대충 듣는 일도, 미처 그 주 찬양을 다 외우지 못하고 찬양대에 서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샌가 예배에 대한 설렘과 준비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지쳤다. 그럴 때면 왜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냐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거나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내가 180도 변화할 거라는 '어린이스러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빨리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다. 주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면 갑자기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나의 삶이 드라마처럼 바뀔 줄 알았다. 해가 지나면서 '난 교회도 안 빠지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는데 주님은 왜 빨리 나를 안 만나주실까?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계심을 체험한 후에도 못 어른들의 간증에서 들려오는 드라마틱한 주님과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터라 믿음이 들쭉날쭉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내게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하며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습관같이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그 때 고등부 설교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돌아온 탕자'였다. 지금까지 작은아들 탕자에 대한 설교 말씀을 주로 들었다. 하지만 그날 설교에서 목사님은 큰아들 탕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탕자였다.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큰아들 또한 탕자였다.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매주 교회 출석을 거르지 않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 또한 작은아들과 같은 큰아들 탕자였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작은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께서 큰아들의 마음도 받아주실 것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모두에게 주님은 필요하다. 작은아들에게 그랬듯이 당연히 큰아들에게도, 내게도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음을, 단지 나의 죄에 내 눈이 가려져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주일은 내게 설렘으로 다가온다. 더 이상 습관처럼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뺄 놓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었다. 전과는 달리 미리 준비로 예배에 나아가게 되었다. 힘든 일이 있을 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멋진 해결책들을 주시고 계신다.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기에 나는 탕자라서 행복하다. 나의 신앙이 매 순간 끓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해 주신,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린다.

임희진(고등부)

2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믿어야 한다

| 찬 송 |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본 문 | 요한복음 18:33~38

³³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³⁴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³⁵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립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³⁶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³⁷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하신대 ³⁸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1 주일

12 월요일

13 화요일

☐ 시편 45편

☐ 시편 46편

14 수요일

☐ 시편 47편

15 목요일

☐ 시편 48편

16 금요일

☐ 시편 49편

17 토요일

☐ 시편 50편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문을 당하시는 광경을 보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 심문받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며,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며, 진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써 보십시오.

계 17:14

계 19:16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18:34~3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마 27:11 ; 눅 23: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나셨고,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실은 두 부류의 이방인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 두 부류의 이방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마 2:1~2 ; 요 19:19)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 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요 18:31, 19:21). 유대인의 왕 은 유대인에 의해 죽임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만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 17:2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요 18:36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임금이지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나라이며, 부패와 불의로 말미암아 장차 멸망에 이르게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요 12:31 ; 고전 15:19).

※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선언하신 '내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1. _____(대상 17:14)
2. _____(눅 22:30)
3. _____(사 5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게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요 18:37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요 1:14).

※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요 8:32)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서 떠난 인간의 부패한 심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까닭에 늘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때때로 세상의 왕은 오히려 진리를 어기고 거스르며, 권세를 잡기 위해 권모술수를 망설이지 않는 거짓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어둠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정리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의 왕이시므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왕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진리를 따릅니다(요 18:37).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만민의 왕이시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참된 진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왕으로 계십니까? 그분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습니까? 삶을 점검해 보고,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구이며, 우리 안에 세워진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시 5:2 _____

시 74:12 _____

시 145: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 ③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title page. It contains the title of the document, the author's name, and the date of the document. The title i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uthor is "John Adams". The date is "1776".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is a preface. It contains the author's introduction to the document. The author states that the document is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it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public of the events that have shaped the nation.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is the main body of the text. It contains the author's account of the events that have shap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uthor begins with the founding of the nation, and then proceeds to describe the various events that have shaped the nation's history, including the American Revolution, the Civil War, and the Reconstruction era.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is a conclusion. It contains the author's final thoughts o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uthor states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nation that has been shaped by the events of its history, and that it is a nation that is still being shaped by the events of its present.

5.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references. It contains the names of the various sources that the author has used in writing the document. The references include books, articles, and other sources that have provided the author with the information needed to write the document.

충현의 만나 • 37

시편 45편
찬송가 313장

묵상노트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을 왕의 아름다움을 높입니다(1~2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며 원수를 물리치고 만민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노래합니다(3~5절). 또 영원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왕이 누리는 영광은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말합니다(6~9절). 시인은 왕의 신부에게 왕이 그의 주인이니 그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10~11절). 왕의 신부는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리라고 노래합니다(13~15절). 왕의 아들들은 조상을 계승할 것이며, 시인은 왕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16~17절).

왕의 결혼식에서 왕을 찬양하는 노래로 사용된 이 시편은 열방들에 대해 승리한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 속한 왕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결국은 사라지고 그 어떤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빌 2:9~10).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결국은 사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 왕의 동료(7절): 다른 열국의 왕들,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다는 이 구절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시 45:6)

Your throne, O God, will last for ever and ever; a scepter of justice will be the scepter of your kingdom. (Ps. 45:6)

기도제목

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제7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8월 26일~28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13

화요일

시편 46편

찬송가 70장

묵상노트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며 힘이심을 믿는 시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넘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1~3절). 시인은 모든 나라가 떠들어도 성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면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4~6절).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7~11절).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나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 고백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10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발이 묶였고,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들을 보고 두려워서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이 홍해나 애굽의 병거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넘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2~3절)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대적에게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대가로 일어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도대시 46:10)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Ps. 46:10)

• **시편(4절)** : 하나님의 보 존과 새롭게 하시는 복 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것에 대한 은유이다.

기도제목

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 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 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4

수요일

시편 47편
찬송가 68장

묵상노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선포합니다(1~2절). 또 여호와께서 열방을 자신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기업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3~4절). 시인은 즐거운 합성 가운데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는 못 백성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왕이 되시기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5~8절). 시인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9절).

하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놀라운 창조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온 우주만물과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사상과 논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의 창조와 천하 만물의 질서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지혜의 새(7절) : 아름다운 음률로 찬양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른 태도로 찬양하라.

모든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대시(47:9)

The nobles of the nations assemble as the people of the God of Abraham, for the kings of the earth belong to God; he is greatly exalted. (Ps. 47:9)

기도제목

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15

목요일

시편 48편

찬송가 440장

묵상노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시온 산과 같은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고 왕들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주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셨다고 찬양합니다(3~7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와 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8절). 그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충만하신 정의를 생각하며 주님의 심판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9~11절). 시인은 시온의 망대와 성벽과 궁전을 살펴서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기를 권면합니다(12~14절).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수많은 권세자들과 왕들이 나타나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지만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드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권세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와 부요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시 48:1)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in the city of our God, his holy mountain. (Ps. 48:1)

• 다시스의 배(7절) :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위대한 해상 업적이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안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 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시편 49편
찬송가 212장

묵상노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1~4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생명을 속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 두고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므로 시인은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5~12절). 시인은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13~15절). 그는 사람의 부유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결국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사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단언합니다(16~20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힘과 부요와 인간관계를 쌓아 그 안에 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쌓은 세상의 가치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부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요 1:1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 멸망하는 짐승(12, 20절) : 곧 도륙당하여 사라질 짐승. 참된 이성을 상실한 인간을 표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시 49:15)

But God will redeem my life from the grave; he will surely take me to himself. Selah(Ps. 49:15)

기도제목

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아삽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대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1~2절),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며 공의를 선포하는 심판장이시라고 선포합니다(1~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 가족을 비방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그 죄를 그들의 눈앞에 날같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7~21절).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22~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원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수와 종류를 말씀하셨고, 흠이 없는 것으로 제물을 삼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제물을 가지기 원해서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손으로 그런 제물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과 여호와를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들을지여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대시 50:7)

Hear, O my people, and I will speak, O Israel, and I will testify against you: I am God, your God.(Ps. 50:7)

• 나의 성도(5절) :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제목

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마귀의 팔복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설교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3~12). 그러나 마귀의 팔복은 정반대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임이요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임이요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임이요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이요

걸핏하면 빼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임이요

주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임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3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그 이

| 초 점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의 아들 메시야로 믿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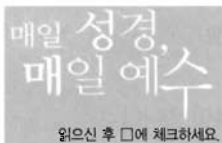
| 찬 송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본 문 | 요한복음 1:43~46

⁽⁴³⁾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
라 하시니 ⁽⁴⁴⁾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⁴⁵⁾빌립이 나다
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
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⁴⁶⁾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19 주일

20 월요일
☐ 시편 51편

21 화요일
시편 52편

22 수요일
☐ 시편 53편

23 목요일
☐ 시편 54편

24 금요일
☐ 시편 55편

25 토요일
☐ 시편 56편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소명을 들은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 제자가 된 후 빌립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 1:45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믿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언급하지 않았고, 특별히 구약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신 18:15,18

빌립의 시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요 6:5~7 _____

빌립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셨습니다.

요 14:8~9 _____

빌립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다나엘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드러내는 진리였습니다.

※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실로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신 진정한 이십니다. 그는 실제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이시며, 진정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진수이십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창 3:15 _____

신 18:15,18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메시아가 아니라, 대략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준비되어졌던 언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예언을 따라서 예언을 성취하신 진정한 메시아로서, 구약성경의 정통성과 권위에 근거한 메시아이셨습니다.

※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립의 증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지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근거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눅 24:27 _____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요 20:31 _____

요한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요셉의 아들'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 1:45 /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_____ 나라

※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라는 말의 두 가지 측면을 정리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신 존재라는 것,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요셉의 아들로써 유대에서 살아가셨으나, 그 인간의 혈통적 사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셨으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써 보십시오.

마 16:16 _____

요 11:27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말씀 안에 거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팀)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설교노트

오늘 설교를 하신 주제를 기록하십시오.

1998-1999,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2024-2025, 2025-2026, 2026-2027, 2027-2028, 2028-2029, 2029-2030, 2030-2031, 2031-2032, 2032-2033, 2033-2034, 2034-2035, 2035-2036, 2036-2037, 2037-2038, 2038-2039, 2039-2040, 2040-2041, 2041-2042, 2042-2043, 2043-2044, 2044-2045, 2045-2046, 2046-2047, 2047-2048, 2048-2049, 2049-2050, 2050-2051, 2051-2052, 2052-2053, 2053-2054, 2054-2055, 2055-2056, 2056-2057, 2057-2058, 2058-2059, 2059-2060, 2060-2061, 2061-2062, 2062-2063, 2063-2064, 2064-2065, 2065-2066, 2066-2067, 2067-2068, 2068-2069, 2069-2070, 2070-2071, 2071-2072, 2072-2073, 2073-2074, 2074-2075, 2075-2076, 2076-2077, 2077-2078, 2078-2079, 2079-2080, 2080-2081, 2081-2082, 2082-2083, 2083-2084, 2084-2085, 2085-2086, 2086-2087, 2087-2088, 2088-2089, 2089-2090, 2090-2091, 2091-2092, 2092-2093, 2093-2094, 2094-2095, 2095-2096, 2096-2097, 2097-2098, 2098-2099, 2099-2100, 2100-2101, 2101-2102, 2102-2103, 2103-2104, 2104-2105, 2105-2106, 2106-2107, 2107-2108, 2108-2109, 2109-2110, 2110-2111, 2111-2112, 2112-2113, 2113-2114, 2114-2115, 2115-2116, 2116-2117, 2117-2118, 2118-2119, 2119-2120, 2120-2121, 2121-2122, 2122-2123, 2123-2124, 2124-2125, 2125-2126, 2126-2127, 2127-2128, 2128-2129, 2129-2130, 2130-2131, 2131-2132, 2132-2133, 2133-2134, 2134-2135, 2135-2136, 2136-2137, 2137-2138, 2138-2139, 2139-2140, 2140-2141, 2141-2142, 2142-2143, 2143-2144, 2144-2145, 2145-2146, 2146-2147, 2147-2148, 2148-2149, 2149-2150, 2150-2151, 2151-2152, 2152-2153, 2153-2154, 2154-2155, 2155-2156, 2156-2157, 2157-2158, 2158-2159, 2159-2160, 2160-2161, 2161-2162, 2162-2163, 2163-2164, 2164-2165, 2165-2166, 2166-2167, 2167-2168, 2168-2169, 2169-2170, 2170-2171, 2171-2172, 2172-2173, 2173-2174, 2174-2175, 2175-2176, 2176-2177, 2177-2178, 2178-2179, 2179-2180, 2180-2181, 2181-2182, 2182-2183, 2183-2184, 2184-2185, 2185-2186, 2186-2187, 2187-2188, 2188-2189, 2189-2190, 2190-2191, 2191-2192, 2192-2193, 2193-2194, 2194-2195, 2195-2196, 2196-2197, 2197-2198, 2198-2199, 2199-2200, 2200-2201, 2201-2202, 2202-2203, 2203-2204, 2204-2205, 2205-2206, 2206-2207, 2207-2208, 2208-2209, 2209-2210, 2210-2211, 2211-2212, 2212-2213, 2213-2214, 2214-2215, 2215-2216, 2216-2217, 2217-2218, 2218-2219, 2219-2220, 2220-2221, 2221-2222, 2222-2223, 2223-2224, 2224-2225, 2225-2226, 2226-2227, 2227-2228, 2228-2229, 2229-2230, 2230-2231, 2231-2232, 2232-2233, 2233-2234, 2234-2235, 2235-2236, 2236-2237, 2237-2238, 2238-2239, 2239-2240, 2240-2241, 2241-2242, 2242-2243, 2243-2244, 2244-2245, 2245-2246, 2246-2247, 2247-2248, 2248-2249, 2249-2250, 2250-2251, 2251-2252, 2252-2253, 2253-2254, 2254-2255, 2255-2256, 2256-2257, 2257-2258, 2258-2259, 2259-2260, 2260-2261, 2261-2262, 2262-2263, 2263-2264, 2264-2265, 2265-2266, 2266-2267, 2267-2268, 2268-2269, 2269-2270, 2270-2271, 2271-2272, 2272-2273, 2273-2274, 2274-2275, 2275-2276, 2276-2277, 2277-2278, 2278-2279, 2279-2280, 2280-2281, 2281-2282, 2282-2283, 2283-2284, 2284-2285, 2285-2286, 2286-2287, 2287-2288, 2288-2289, 2289-2290, 2290-2291, 2291-2292, 2292-2293, 2293-2294, 2294-2295, 2295-2296, 2296-2297, 2297-2298, 2298-2299, 2299-2300, 2300-2301, 2301-2302, 2302-2303, 2303-2304, 2304-2305, 2305-2306, 2306-2307, 2307-2308, 2308-2309, 2309-2310, 2310-2311, 2311-2312, 2312-2313, 2313-2314, 2314-2315, 2315-2316, 2316-2317, 2317-2318, 2318-2319, 2319-2320, 2320-2321, 2321-2322, 2322-2323, 2323-2324, 2324-2325, 2325-2326, 2326-2327, 2327-2328, 2328-2329, 2329-2330, 2330-2331, 2331-2332, 2332-2333, 2333-2334, 2334-2335, 2335-2336, 2336-2337, 2337-2338, 2338-2339, 2339-2340, 2340-2341, 2341-2342, 2342-2343, 2343-2344, 2344-2345, 2345-2346, 2346-2347, 2347-2348, 2348-2349, 2349-2350, 2350-2351, 2351-2352, 2352-2353, 2353-2354, 2354-2355, 2355-2356, 2356-2357, 2357-2358, 2358-2359, 2359-2360, 2360-2361, 2361-2362, 2362-2363, 2363-2364, 2364-2365, 2365-2366, 2366-2367, 2367-2368, 2368-2369, 2369-2370, 2370-2371, 23

doi:10.1017/S0022292412001619

1000

현이 만세를 통해 세이 무늬의 보은을 통해 / 정경호의 수고 보은을 받기 위하여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시편 51편
찬송가 264장

묵상노트

다윗은 주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1~2절). 그는 자신이 주께 범죄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3~5절). 다윗은 주님께서 우슬 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눈보다 희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7~9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합니다(10~12절). 그리하면 다윗은 죄인들을 교훈하고 주의 의를 높이며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말합니다(13~15절). 그는 주님께서는 변제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16~17절)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변제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말합니다(18~19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행 13:22)이라는 평가를 받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한 것은 가장 흉악한 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삼하 12장).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극심했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쩌다 한 번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합니다(5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요일 1:9).

• 창조하시고(10절) : 회개는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Ps. 51:17)

기도제목

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만 의지하라

20

화요일

시편 52편

찬송가 543장

묵상노트

다윗은 악한 말을 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고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에서 뽑아내며 뿌리를 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의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비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1~7절).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며 이를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선편하신 주의 이름만 사모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8~9절).

교만하고 악한 원수들에게 공격당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없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세상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를 파멸 가운데로 이끌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협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 다윗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지혜나 모시나 힘이나 갑옷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수백 년을 살아가는 감람나무와 같이 안전하고 든든히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에게 닥쳐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시 52:8)

But I am like an olive tree flourishing in the house of God; I trust in God's unfailing love for ever and ever. (Ps. 52:8)

• 푸른 감람나무(8절) :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한다.

기도제목

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ی 없다고 말합니다(1절). 하나님께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2~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흠으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스라엘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5~6절).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없는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를 흠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 **뼈를 흠으심(5절)** : 시인이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된 이것은 인간의 가장 수치스런 죽음으로 여겨졌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대시(53:6)

Oh, that salvation for Israel would come out of Zion! When God restores the fortunes of his people, let Jacob rejoice and Israel be glad!(Ps. 53:6)

기도제목

①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22

목요일

시편 54편

찬송가 546장

묵상노트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변호해 주시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구합니다(1~2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 그를 쳐서 그의 생명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시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다윗은 주님께서 그의 원수를 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3~5절). 주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그가 보게 하였으므로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6~7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그 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인생이 잘될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오히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삶이라기에는 너무나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약속을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의 무게도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시 54:1)
Save me, O God, by your name; vindicate me by your might.(Ps. 54:1)

• 낙헌제(6절) : 서원이나 기도와 함께 드려진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기도제목

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55편

찬송가 382장

묵상노트

원수의 소리와 압제 앞에서 근심하며 탄식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1~3절). 사망의 위험이 이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고 또 자신의 피난처로 가서 폭풍을 피하겠다고 말합니다(4~8절). 다윗은 성 중에서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를 행하여 분쟁을 일삼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9~11절).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던 동료이자 친구라고 한탄합니다(12~14절).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15~19절). 자신의 원수가 그를 배반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원수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20~23절).

다윗은 그가 믿었던 친구가 그를 배반하여서 핍박하는 것을 보고 한탄합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며 위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23절)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 **유유 기쁨(21절)** : 베타나 치즈. 위인이 부드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Ps. 55:22)

기도제목

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다윗은 원수가 그를 삼키려 하고 압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1~2절). 그는 두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3~4절). 다윗의 원수들은 그의 말을 곡해하며 그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악을 행합니다(5~7절). 그는 자신의 유리함과 눈물을 주께서 보시고 그가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나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8~9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송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10~11절). 그는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12~13절).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겠노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그의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노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33). 또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막 5:36)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 56:11)
in God I trust;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an do to me?(Ps. 56:11)

• 병(8절) : 물 같은 액체를 담은 가죽부대. 물이 귀한 근동에서는 가족부대를 귀하게 여겼다.

기도제목

- 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앞장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기도노트

비유내용	의미와 교훈
소금	성도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마 5:13).
빛·등불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한다 (마 5:14~16 ; 막 4:21~22 ; 눅 8:16, 11:33).
좁은 문	세상에서 주를 섬기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 결과는 영생이다 (마 7:13~14 ; 눅 13:24).
집의 기초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준행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마 7:24~27).
혼인집 손님	성도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있다 (마 9:15 ; 막 2:19~20 ; 눅 5:34~35).
생베조각과 낡은 옷	복음은 유대교 율법 및 세상의 사상과 완전히 다르다(마 9:16).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복음과 유대 율법 및 세상의 사상은 공존할 수 없다(마 9:17).
추수할 일꾼	세상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마 9:37~38 ; 눅 10:2).
뱀과 비둘기	성도는 사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로우나 음흉하지 않고 순결하나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마 10:16).
장터의 아이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 무반응하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한다(마 11:16~17).
더러운 귀신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종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진다(마 12:43~45).
씨 뿌리는 자 와 밭	복음은 골고루 전해지나 그 결과는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마 13:3~8 ; 막 4:3~8).
가리지	이 땅에서는 종말까지 선악이 공존하나 끝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마 13:24~30).

예수님의 비유들

자신이 복음 사역의 수행자이면서, 복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사였던 예수님은 교훈이나 설교의 한 방법으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 비유란 문자 그대로 어느 한 사물이나 사건을 다른 한 사물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특히 심오하고 난해한 추상적 사상을 일상 생활의 친근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이해를 돕는 문학적 기법을 말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이 추상적 진리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시키는 측면 외에도 특별한 경우, 즉 고의로 복음을 왜곡하려 한다가나 복음을 무시하려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담긴 의미를 말하면서도 직접적 언급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사용되었다(마 13:11).

비유내용	의미와 교훈
겨자씨	교회는 예수 시대에 미약하게 시작되나 결국 크게 발전한다 (마 13:31~32 ; 막 4:30~32 ; 눅 13:18~19).
누룩	복음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며 계속 퍼져간다 (마 13:33 ; 눅 13:20~21).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값지고 보배로운 곳인 바, 자신의 전체를 헌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마 13:44).
진주	천국은 소중하고 귀한 곳인 바, 자신의 전체를 헌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마 13:45~46).
그물	복음은 고기를 잡으려는 그물처럼 세상에 던져지나 나중에는 의로운 자만이 선택된다(마 13:47~48).
집주인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알아 전하며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마 13:52).
잃은 양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바, 모든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마 18:12~13 ; 눅 15:4~6).
빛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한다(마 18:23~34).
포도원 품꾼	하나님은 계속하여 죄인을 성도로 부르신다. 이때 성도는 남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구원에 감사해야 한다. 구원을 주심과 상급을 주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다(마 20:1~16).
두 아들	구원은 형식적 눈물이 아니라 회개와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방인의 회개를 암시한다(마 21:28~32).
불의한 농부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특히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방인의 회개를 암시한다(마 21:33~40).

4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 초 점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 찬 송 |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 본문 | 요한복음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7]에 체크하세요.

25 주일

26 월요일

☐ 시편 57편

27 화요일

☐ 시편 58편

28 수요일

☐ 시편 59편

29 목요일

☐ 시편 60편

30 금요일

☐ 시편 61편

31 토요일

☐ 시편 62편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서는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발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 2:11 _____

※ 표적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증명을 받아야 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 20:30~31 _____

표적에 대하여 축각을 가장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고전 1:22 ; 요 2:18,23, 3:2).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오직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요 4:48 _____

요한복음이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확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나 철학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단순한 믿음의 결단 앞에 놓여졌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함께 묶어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목적은 모두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된 표적들

예수님의 약속대로 표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요 14:12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표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행 2:22,43)

※ 표적은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던 사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행 4:30)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표적을 허락하신 일들은 사도행전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사도행전 5:12, 6:8, 8:6,13, 14:3, 15:12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표적은 그분 자신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겸손함, 가장 저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신 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비어있는 무덤, 승천하셨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자체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처럼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눅 2:11~12 _____

요 12:37 _____

유 1:25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표적을 행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illegible]

11.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7; 277: 1001-1005.

Figure 10.10: A plot of the function $f(x) = \sin(x)$ for $x \in [0, 2\pi]$. The function is periodic and oscillates between -1 and 1.

DOI: 10.1002/anie.200525002

시편 57편
찬송가 497장

묵상노트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1절). 그는 그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그를 구원하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2~3절). 그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와 불사르는 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4~5절).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중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높이고 하늘 위에 높이시며 온 세계 위에 높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6~11절).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그를 쫓는 사울의 위협이 가깝고 또 집요했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하늘보다 크고 높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평안할 때나 또는 그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가 아니라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위기의 순간에도 이처럼 아름답고 장엄한 찬양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되었고(7절) : 굳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 다(시 57:11)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Ps. 57:11)

기도제목

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세말하게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27

화요일

시편 58편

찬송가 458장

묵상노트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함에도 잠잠한 자들에게 다윗은 그들이 중심에 악과 폭력을 행하며 거짓을 말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술사의 소리에도 따르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말합니다(1~5절).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이를 꺾으시고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하시며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6~9절). 다윗은 악인은 결국 보복당하고 의인에게 값음이 있어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10~11절).

다윗은 대법관 되시는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악행과 죄악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함에도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위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시 58:11)

Then men will say, "Surely the righteous still are rewarded; surely there is a God who judges the earth." (Ps. 58:11)

• **가사나유(9절)** : 불이 잘 붙는 나무. 여기에서는 악인들이 빨리 멸망당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기도제목

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회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8

수요일

자기를 부인하고

시편 59편
찬송가 94장

묵상노트

다윗은 자신을 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1~2절). 그들은 무고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주시고 그들을 벌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3~5절). 개처럼 울며 악을 토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바윗고 조롱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6~8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시고 인자 하심으로 영접하시며 그의 원수를 보응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으시고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며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 알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9~13절). 그들은 개처럼 울며 배고파 밤을 새울 것이지만 다윗 자신은 주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요새가 되시고 공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 말합니다(14~17절).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그를 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속임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거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원수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깨뜨리고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모함하는 자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교만한 중에 패망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구할 때 그는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잠 18:12). 우리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유리하다가(15절) : 아무런 소득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공회하 여기시는 하나님임이시니이다(시 59:17)

O my Strength, I sing praise to you; you, O God, are my fortress, my loving God. (Ps. 59:17)

기도제목

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십자가 묵회를 하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느낄 때

29

목요일

시편 60편

찬송가 400장

묵상노트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느끼는 다윗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주께서 보이신 것임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시는 주님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1~4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달라는 다윗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이방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셨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5~8절). 그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임을 알고 그들의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9~12절).

이 시편은 예돔으로 추정되는(9절) 이방의 공격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방의 공격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은 이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의 구원도 소용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한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나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느낄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의 도움에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잠 8:17). 주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느껴지거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바로 그때가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시 60:5)
Save us and help us with your right hand, that those you love may be delivered. (Ps. 60:5)

• 깃발(4절) : 승리를 약속하는 증표이다.

기도제목

①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30

금요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1편
찬송가 39장

묵상노트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유의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1절). 그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다윗은 주님을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2~3절). 그는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영원히 피하겠다고 노래합니다(4~5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5~8절).

다윗은 중대하고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기가 곧 죽음에 이르는 땅 끝과 같은 곳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보다 높은 바위에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안전한 장소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침범할 수 없는 그곳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과 의지와 헌신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며, 죄의 대가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견고한 망대(3절) :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구조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한다(삼하 22:5).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시 61:3)
For you have been my refuge, a strong tower against the foe. (Ps. 61:3)

기도제목

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교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31

토요일

시편 62편

찬송가 353장

묵상노트

다윗은 그의 반석이요 구원이며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합니다(1~2절). 그의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며 그를 저주하지만 그는 소망의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며 그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주님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3~7절).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8절). 그는 사람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우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며, 모든 권능과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한 것이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9~12절).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 공격하며 저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조롱하고 모함하며 저주의 말을 퍼뜨리지만 그는 악한 자들의 부질없는 외침보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세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다(시 62:6)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ot be shaken. (Ps. 62:6)

• 마음을 토하라(8절) :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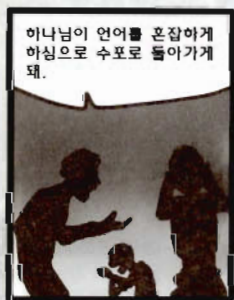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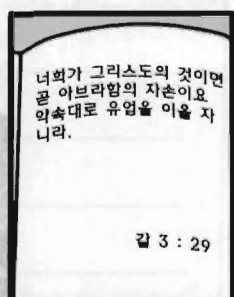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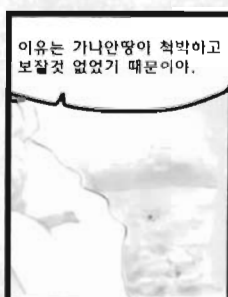
① 언제나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의 재단(물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바벨탑과 아브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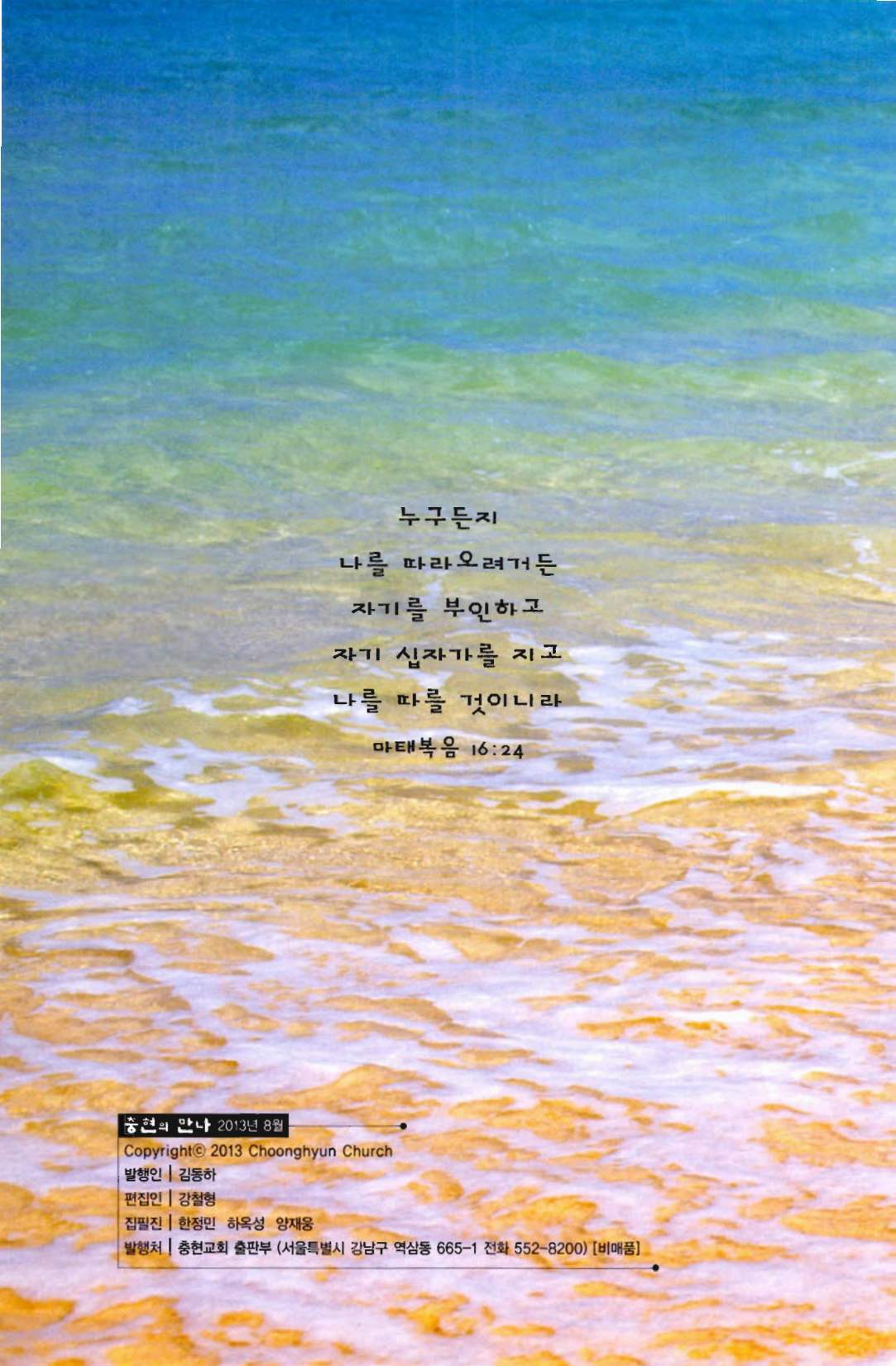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이집트의 고대 문명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이집트 신화	그리스 고전 미술 파르테논 신전, 조각품 그리스 신화	로마 제국의 영광 콜로세움, 황제들의 통치 로마 신화	중세 유럽의 성곽 성벽, 성채, 기사단 중세 유럽의 문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르네상스 인문주의	바로크 시대의 장엄 베르디, 모차르트 바로크 음악	18세기 프랑스의 혁명 루이 16세,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19세기 유럽의 산업 혁명 공장, 기계, 도시화 산업 혁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8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하옥성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